초등학교 학생의 자기통제력과 비행*

민 수 흥**

이 연구 논문에서는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and Hirschi, 1990]의 자기통제 이론이 갖는 일반 명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인 자기통제력을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기기입식 자료와 그 담임 교사의 보고 자료를 사용하여 조작화하고 측정하였다. 범죄의 일반 이론으로 제시된 자기통제이론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의 다섯 가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첫째, 일반 이론으로서 자기통제이론에 대한 이제까지의 이론 검증이 서양 사회에서 수집한 자료에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문화와 가치가 다른 동양 사회, 더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둘째, 자기통제이론이 주장하는 자기통제력의 조기발달 주장을 초등학교 학생 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셋째, 자기통제력의 원인으로 부모의 범죄성, 부모의 자녀 감독, 결혼가정 여부, 어머니의 취업과 성별을 포함하여 검증하였다. 넷째, 성별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검증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더 나이는 청소년에 비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비행의 기회 측면에서 성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따라서 성별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에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브라운필드와 소렌슨[Brownfield and Sorenson, 1993]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기통제력 이외에 신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를 위해서 분산분석과 중분류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통제이론이 주장하는 바가 전체적으로 경험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연구의 경험적 발견의 토대 위에서 이론적인 함의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안도 하였다.

* 이 글은 1997년 전기 사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간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and Hirschi)가 1990년에 범죄의 일반이론을 출판한 이후로 자기통제이론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범죄학자들은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이 이론의 중요한 주장들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두 저자에 따르면, 범죄나 비행은 저지름에 있어서 발견되는 개인적 차이는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개인의 차별적 경향에 기인한다고 한다. 이들은 이러한 개인의 차별적인 경향을 ‘자기통제력’으로 부르고 범죄와 비행 설명의 중심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자기통제이론에 대한 간프레드슨과 허쉬의 주된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일반성에 대한 것이다. 자기통제이론은 인간의 공통된 본성에 근거하고 있고, 범죄학적 연구를 통해 발견된 유사점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류의 범죄와 비행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주장된다. 이 이론의 일반성 주장은 공간적 차원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제껏 자기통제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된 경험적 자료는 지역적으로 미국(Grasmick et al., 1993; Wood et al., 1993; Arneklev et al., 1993; Brownfield and Sorensen, 1993; Longshore et al., 1996), 캐나다(Keane et al., 1993), 영국(Polakowski, 1994)과 같은 서양사회에 제한되어왔다. 서양 사회와는 사회구조와 문화가 상이한 동양사회 특히 한국사회에도 자기통제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이 이론의 주요 주장에 대한 검증이 될 것이다.

간프레드슨과 허쉬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은 인생의 초기단계에서 형성되고 그 이후로 한평생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자기통제이론에 대한 경험적인 검증은 대부분 성인이나 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얻은 경험적 자료를 사용하였다. 아직까지 초등학교 학생의 자기통제력을 사용하여 그들의 비행을 설명하는 연구는 없었다. 이론의 주장대로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쯤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형성된다고 한다면, 어리지만 초등학교 학생집단에서도 개인간의 자기통제력 차이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통제력 차이가 그들의 비행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간프레드슨과 허쉬는 자기통제력의 원인을 가정을 중심으로 한 초기사회화에서 찾고 있다. 자기통제력의 발달을 위해서는 먼저 아이를 아끼고, 감독하며,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것을 알아차리고 처벌하는 보호자를 필요로 한다. 자기통제력은 가정을 중심으로한 훈육과 교육의 결과이다. 반대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그러한 훈육과 교육이 없거나 부족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자기통제력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제한된 지식만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수의 연구만이 되어졌다[Min, 1994; Polakowski, 1994]. 이 연구에서는 가정구조, 부모의 자녀양육 방법, 성별gender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범죄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성차이다.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나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른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경험적인 연구에서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간프레드슨과 허쉬는 성별을 자기통제력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범죄와 비행에 있어서의 성차를 남녀간의 자기통제력과 범죄 기회의 차이로 설명한다. 그러나 자기통제력과 범죄기회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얼마만큼이 자기통제력 때문이고 얼마만큼이 범죄기회의 차이 때문인지 그 순수효과를 말하기는 어렵다. 초등학교 학생 집단은 더 나이든 집단보다 범죄기회에 있어서 남녀간의 성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기통제력이 범죄나 비행에서의 성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에 초등학교 학생 집단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간프레드슨과 허쉬의 주장 가운데 네 가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는 이론의 일반성에 대해서이다. 자기통제이론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범죄와 비행을 설명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는 자기통제력의 조기형성에 관해서이다.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쯤이면 안정적인 자기통제력이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간프레드슨과 허쉬의 주장이 맞다면, 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자기통제력의 개인 차이를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는 자기통제력의 원인에 관해서다. 이 연구는 부모의 자녀양육 노력, 가정의 구조, 성별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로, 범죄와 비행에서 나타나는 성차가 남녀간의 자기통제력과 범죄나 비행의 기회차이 때문이라는 주장을 초등학교 학생집단에 적용하여 검증한다. 어린 아이들은 남자와 여자사이의 비행기회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작다고 볼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남자와 여자 학생간의 자기통제력 차이가 그들의 비행차이를 설명하는지를 조사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주요 관심사항 이외에 ‘신념’이 자기통제력과 함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한다. 신념은 허쉬(Hirschi, 1969)의 이전 이론인 사회통제이론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신념이라는 규범적인 요소는 통제이론에서 리이스[Reiss, 1951]와 나이[Nye, 1958] 이후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브라운필드와 소렌슨[Brownfield and Sorensen, 1993]은 사회통제이론과 자기통제이론을 비교하면서 간프레드슨과 허쉬가 그들의 새 이론인 자기통제이론에 신념과 그 효과를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신념은 비행에 대해서 자기통제력과 독립적인 그 자체의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 자기통제력과 더불어 신념을 포함한다.

II. 자기통제력

간프레드슨과 허쉬[1990]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으로 “충동적이고, 남의 아픔이나 필요에 둔감하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모험을 좋아하고, 근시적이며, 신체활동이 활발하다”(p. 90)고 한다. 반면에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욕구충족을 연기하고, 행위가 가져올 장기적인 손실을 생각하고, 인지적이며, 조심성이 있고, 말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아픔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흡연, 음주, 약물사용과 난잡한 성생활과 같이 범죄나 비행은 아니면서도 즉각적이고 쉬운 쾌락을 제공하는 ‘유사행위’*analogous behaviors*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제된다거나 결정되어 있다는 입장은 아니다. 간프레드슨과 허쉬[1993]는 낮은 자기통제력을 ‘범죄를 저지르기 쉽게 하는 성격특질’*personality trait predisposing people toward crime*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그래스미크와 그 동료들은(Grasmick et al., 1993) 간프레드슨과 허쉬가 자기통제력의 요인으로 제시한 내용에 근거해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여섯 가지

구성 요소를 확인하였다. 확인된 구성요소는 충동성, 단순한 일의 선호, 모험 추구, 신체적 활동의 선호, 자기 중심성, 성마름 *temper*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자기통제력을 측정하려 한다.

자기통제이론과 관련한 주요한 문제 중 하나가 자기통제력의 경험적 측정이다. 그레스믹과 그 동료들(Grasmick et al., 1993)은 자기 기입식 자료수집 방법을 통해서 다수의 문항을 사용하여 자기통제력을 측정하였다. 허쉬와 간 프레드슨(1993)은 관찰자가 수집한 자기통제력의 행위적 측정을 선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자기통제력이 낮은 응답자가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고, 응답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서 결측자료도 많을 것이고, 그들의 응답이 갖는 신뢰도도 낮을 것이라는 자기통제이론의 이론적 함의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제삼자에 의한 행동 관찰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행위 측정은 기회의 변수와 복잡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기통제력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Longshore et al., 1996). 이러한 이유로 자기통제력을 측정할 때 주관적인 상태와 함께 객관적인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조사 대상이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담임 교사가 각 학생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할 수 있는 최상의 관찰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학생의 자기 기입식 자료와 담임 교사의 보고를 함께 사용하도록 한다.

III. 표 집

이 연구를 위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가운데 지리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10개의 초등학교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각 학교에서 5학년 두 개 학급을 선정하여 모두 20개 학급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1996년 8월과 9월에 구조화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선정된 각 학급의 학생과 담임 교사로부터 자료수집을 실시 했다. 전체적으로 718명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자기 기입식 자료를 제공하였고, 20명의 담임 교사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였다.¹⁾ 표집된 학생의 절반인 359명(50

1) 20명의 담임 교사에게 의해 모두 716부의 교사평가서가 작성되었다. 두 명의 학생은 학급에 세로이 전학을 와서 담임교사가 그들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었다.

%)이 남자 학생 이었고 나머지 반이 여자 학생 이었다.

IV. 측 정

1.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기술했던 이론적 지침에 따라서 다음의 5가지 자기 기입식 문항과 3가지 교사 보고식 문항을 선정하였다. 먼저 초등학생들이 응답한 5가지 문항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학교 숙제를 합니까?’(HOMEWORK),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FIST), ‘나는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즐겁다’(TEASE), ‘난 사고 싶은 물건은 당장 사야 한다’(BUYNOW), ‘나는 싸우고 죽이는 영화가 재미 있다’(VOLMOVIE). 다음으로 담임 교사가 응답한 3가지 문항은 다음과 같다: ‘이 학생이 수업을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TDISTURB), ‘이 학생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까?)’(TNONVERB), ‘이 학생이 수업중에 산만한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TATTENT)²⁾.

얼마나 꾸준히 숙제를 하는지를 측정하는 HOMEWORK는 단순하고 쉬운 일의 선호도와 인지적이거나 학업과 관련된 기술을 바르게 평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FIST는 급한 성질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TEASE는 자기 중심성에 대한 측정으로 볼 수 있다. BUYNOW는 충동성을 측정한다. VOLMOVIE는 위험이나 모험을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담임 교사의 평가인 TDISTURB는 자기 중심성과 충동성을 측정한다. TNONVERB의 경우는 신체 활동을 선호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TATTENT는 충동성과 인지적 또는 학업과 관련된 기술이나 계획의 결핍을 측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8개의 문항들을 합하여 자기통제력의 최종 지표를

2) HOMEWORK는 숙제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는지를 나타내고, 응답항목은 (1) 항상 한다 (2) 했다가 안 했다가 한다 (3) 전혀 안한다이다. FIST, TEASE, BUYNOW, VOLMOVIE는 각각 다음의 4점 리커트 척도를 갖는다: (1) 확실히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절대로 그렇지 않다. TDISTURB, TNONVERB는 응답 항목으로 (1) 없다 (2) 가끔 있다 (3) 자주 있다를 가지고 있다. TATTENT는 (1) 집중을 잘 한다 (2) 보통이다 (3) 산만하다는 응답 항목을 갖는다.

구성하였다.

선택된 문항 가운데 교사평가 3문항과 학생의 자기 기입식 문항 중 학교수체는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4문항은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지표구성을 위해서 4점 척도 문항을 3점 척도로 묶고 자기통제력의 일방향성 선상으로 재배치하여 총점을 구하였다. 자기통제력이 중분류분석에서 요인으로 쓰일 때는 측정된 점수를 6개의 범주로 묶어서 사용하였다. 선택된 8개 문항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점수는 0.73이다. 지표를 구성하면서 결측자료를 갖고 있는 10개의 사례(1.4%)가 떨어져 나가고 모두 708개의 사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신 념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문항을 선정하였다. ‘잠하지만 않으면 벌을 어겨도 괜찮다’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옳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의 두 문항을 합하여 신념을 측정하였고, 중분류분석에서는 3개의 범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3. 비 행

설문조사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비행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난 일년간 다음의 열가지 문항의 경험여부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물어 보았다: 술 취한 경험, 무단 외박, 도박, 음란 서적이나 비디오 관람, 무단 결석, 시험에서 부정행위, 부모님으로부터 교재값을 받아 다른 데 쓰기, 무임승차, 부모에 대한 반항, 교사에 대한 반항.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이들을 합하여 비행의 지표를 구성하였다. 비행측정의 신뢰도는 0.63이었다.

4. 부모의 자녀양육 노력

효과적인 자녀양육은 자기통제력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된다. 가정의 특성은 자녀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그들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된다. 이 연구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녀양육 관련 변수는 부모의 범죄성, 부모의 자녀감독, 결혼 가정여부, 어머니의 취업이다.

범죄성이 높은 보호자는 그 배우자를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확대하기 쉽고, 자녀에 대한 훈계도 손쉽게 근시적인 처벌에 의존하기 쉽다. 따라서 부부간의 난폭한 행동이나 언어사용과 보호자가 자녀를 훈계할 때 난폭한 행동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정도는 자녀의 자기통제력과 역의 관계에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은 자녀의 자기통제력 발달에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부모의 자녀감독은 직접적으로는 외적인 통제가 되어 자녀의 비행을 예방하고 간접적으로는 자녀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비행을 막게 된다. 특히 어려서 부모가 기울이는 자녀에 대한 감독이 자녀의 자기통제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쳐서 아이는 즉각적인 욕구충족을 피할 수 있도록 훈련된다.

친부모가 다 있는 온전한 가정³⁾은 결혼 가정과 비교해서 자녀의 양육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결국 자녀의 자기통제력 발달에도 좋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는 자녀의 자기통제력 발달을 위해서 쏟을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제한되기 쉽다는 면에서 전업주부의 경우보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V. 분 석

자기통제력 지표와 그 원인으로 제시된 변수들(즉, 성별, 부모의 범죄성, 부모의 자녀감독, 결혼가정 여부, 어머니의 취업) 사이에 2변량 관계를 먼저 분석하고, 다변인 분석을 위해서 중분류분석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홍두승, 1994). 그 다음 자기통제력, 신념, 성별, 가정의 구조, 자녀양육 요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분산분석 *ANOVA*와 중분류분석 *MCA*이 사용되었다.

3) 이 연구에서 온전한 가정은 생부모가 계실 뿐만 아니라 조사 시점에서 자녀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로 조작화하였다.

표 1 : 초등학교 학생의 성별, 가정의 구조적 요인과 부모의 자녀양육 요인에 따른 자기통제력 평균

변수와 범주	N	평균 값	F
전 체	708	19.86	
성 별			226.56**
남 자	351	18.33	
여 자	357	21.36	
가정형태			5.11*
결혼가정	98	19.20	
친부모 동거가정	603	19.96	
어머니의 취업			12.83**
취업주부	409	19.51	
전업주부	295	20.34	
부모의 감독			30.56**
1(약하다)	79	17.48	
2	124	19.29	
3	202	19.69	
4(강하다)	303	20.82	
부부간의 난폭한 언행사용			10.48**
1(잘다)	28	17.68	
2	126	19.02	
3	202	19.90	
4(없다)	350	20.29	
자녀훈계시 부모의 난폭한 언행사용			17.32**
1(잘다)	34	17.68	
2	151	19.10	
3	286	19.74	
4(없다)	235	20.80	

* $p < 0.05$ ** $p < 0.01$

VI.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분석결과는 자기통제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기통제력과 그 원인변수들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2변량 관계의 분석에 포함된 자기통제력의 원인변수들은 모두 자기통제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표 1 참고). 구체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또한 온전가정의

표 2 : 초등학교 학생의 성별, 가정의 구조적 요인과 부모의 자녀양육 요인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분류분석(MCA)

총평균=19.85	N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균	Eta	다른 요인들과 공변량을 통제한 후의 평균	Beta
성 별			0.50		0.42**
남 자	342	18.31		18.54	
여 자	351	21.36		21.13	
가정형태			0.08		0.00
결손가정	97	19.24		19.83	
친부모 동거가정	596	19.95		19.85	
어머니의 취업			0.13		0.07**
취업주부	401	19.52		19.65	
전업주부	292	20.32		20.12	
부모의 감독			0.34		0.17**
1(약하다)	78	17.50		18.52	
2	123	19.31		19.84	
3	194	19.67		19.71	
4(강하다)	298	20.81		20.29	
부부간의 난폭한 언행사용			0.20		0.13**
1(짚다)	27	17.74		19.10	
2	124	19.06		19.11	
3	198	19.89		20.10	
4(없다)	344	20.28		20.03	
자녀훈계시 부모의 난폭한 언행사용			0.27		0.15**
1(짚다)	34	17.68		18.51	
2	150	19.07		19.46	
3	281	19.74		19.79	
4(없다)	228	20.83		20.83	
Multiple R ²					0.34

자녀가 결손가정의 자녀보다 각각 더 높은 자기통제력 평균값을 나타냈다.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가정의 자녀들이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보다 더 높은 자기통제력을 보였다. 부모의 감독이 강할수록 자녀의 자기통제력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아이의 부모들이 서로간에 난폭한 행동이나 언어를 사용할수록, 또는 부모가 아이를 야단 치면서 난폭한 행동이나 언어를 사용할수록 아이의 자기통제력이 각각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중분류분석을 통해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어도 성별, 어머니의 취업, 부모의 자녀훈계시 난폭한 언행사용은 계속해서 자기통제력과 일관된 관계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다른 독립변수들이 통제될 때 여자의 자기통제력 평균값은 남자보다 2.59만큼 더 높았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면서 결손가정과 온전가정 사이에서 발견되던 자기통제력 차이는 줄어들어 통계적 유의도가 상실되었다. 이밖에 부모의 감독과 부부간의 난폭한 언행사용은 전체적으로 자기통제력과 기대된 형태의 관계가 관찰되었지만 일관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표 2 참고).

중분류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이 자기통제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구조적 요인과 자녀양육 요인을 비교하면 자녀양육 요인이 자기통제력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효과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가정구조가 이상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모나 보호자의 관심과 노력으로 자녀의 자기통제력을 개발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독립변수들이 자기통제력 변량의 34%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기통제력 이외에 신념,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부모의 자녀양육 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먼저 각 독립변수와 비행의 일차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분석에 포함된 각 독립변수의 범주에 따른 비행의 평균값 차이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요인들에서 비행에 대한 유의한 평균차이가 관찰되었다(표 3 참고). 구체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결손가정이 온전가정보다 각각 더 높은 비행 평균값을 보였다. 부모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세 요인들에서도 모두 기대한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부모의 자녀감독이 약할수록, 부모가 서로에게 난폭한 언행을 사용할수록, 또한 자녀에게 난폭한 언행을 사용할수록 높은 비행 평균값이 관찰되

표 3 : 초등학교 학생의 성별, 가정의 구조적요인, 부모의 자녀양육 요인, 자기통제력, 신념에 따른 비행평균

변수와 범주	N	평균값	F
전 체	704	12.01	
성 별			27.20**
남 자	351	12.51	
여 자	353	11.52	
가정형태			7.34**
결손가정	96	12.67	
친부모 동거가정	601	11.90	
어머니 취업			0.14
취업주부	405	12.05	
전업주부	295	11.98	
부모의 감독			15.03**
1(약하다)	80	13.45	
2	124	12.41	
3	200	12.04	
4(강하다)	300	11.44	
부부간의 난폭한 언행사용			17.16**
1(잘다)	28	14.50	
2	126	12.83	
3	199	11.89	
4(없다)	349	11.60	
자녀 훈계시 부모의 난폭한 언행사용			14.97**
1(잘다)	34	13.76	
2	149	12.54	
3	285	12.14	
4(없다)	234	11.27	
자기통제력			44.06**
1(약하다)	24	16.71	
2	56	13.96	
3	116	12.74	
4	159	11.89	
5	193	11.42	
6(강하다)	147	10.76	
신 념			25.02**
1(약하다)	61	13.28	
2	85	13.35	
3(강하다)	550	11.68	

었다.

신념은 범주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신념이 강할수록 비행의 평균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단일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은 신념의 변량이 작고 전체 중 대다수가 강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좀더 변별력 있는 문항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문항 수도 늘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통제력은 비행과의 관계에서 예상되어진 대로 단일한 역관계를 보였다. 자기통제력이 약할수록 비행의 평균값은 크게 나타나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0.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자기통제력은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어도 비행과 일관되게 역의 관계를 보였다.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기 전에는 자기통제력이 가장 낮은 범주와 가장 높은 범주 사이의 비행 평균값 차이가 5.99이었다. 다른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통제되면서 이 차이가 5.04로 약간 줄어들지만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비행 평균값이 12.01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자기통제력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의 각 독립변수들이 비행에 대해 갖는 관계는 중분류분석에서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어도 대체적으로 유지되었다(표 4 참고). 그러나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하면 어머니의 취업은 역의 관계를 보였다.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아이들의 비행 평균값이 취업주부 자녀들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이 관계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다른 독립변수들이 통제되면서 성별과 비행의 관계에서도 역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더 높은 비행 평균값을 나타내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일차적 분석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비행 평균값을 나타냈던 것은 상당부분 통제된 다른 요인들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과 비행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자기통제력을 공변량(*covariate*)으로 사용하여 통제해보았다. 분석결과, 남자와 여자사이에서 관찰되던 비행의 차이는 줄어들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성별과 비행의 2변량관계에서 발견되었던 성차는 대부분 자기통제력을 중심으로한 다른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분류분석 결과에 의하면, 분석에 포함된 전체 독립변수들이 비행 전체의 분산 중 약 32%를 설명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자기통제력이다. 자기통제력의 Eta값은 0.50으로 가장 커서 비행과의 2변량관계에서 비행의 분산을 약 25%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통제력의

표 4 : 초등학교 학생의 성별, 가정의 구조적 요인, 부모의 자녀양육 요인, 자기통제력, 신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분류분석(MCA)

총평균 = 12.01	N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균	Eta	다른 요인들과 공변량을 통제한 후의 평균	Beta
성 별			0.21		0.04**
남 자	333	12.55		11.91	
여 자	345	11.49		12.10	
가정형태			0.10		0.04**
결손가정	95	12.66		12.29	
친부모 동거가정	583	11.90		11.96	
어머니의 취업			0.00		0.09
취업주부	392	12.02		11.82	
전업주부	286	11.99		12.28	
부모의 감독			0.25		0.08**
1(약하다)	76	13.50		12.43	
2	120	12.39		12.16	
3	191	12.04		12.04	
4(강하다)	291	11.44		11.81	
부부간의 난폭한 언행사용			0.26		0.14**
1(찾다)	26	14.66		13.52	
2	122	12.73		12.36	
3	192	11.90		11.89	
4(없다)	338	11.61		11.84	
자녀훈계시 부모의 난폭한 언행사용			0.24		0.09**
1(찾다)	34	13.77		12.49	
2	146	12.52		12.27	
3	273	12.13		12.07	
4(없다)	225	11.27		11.70	
자기통제력			0.50		0.41**
1(약하다)	24	16.71		16.07	
2	56	13.97		13.73	
3	110	12.77		12.47	
4	157	11.91		11.90	
5	187	11.45		11.55	
6(강하다)	144	10.72		11.03	
신 념			0.26		0.14**
1(약하다)	58	13.30		12.72	
2	83	13.30		12.75	
3(강하다)	537	11.67		11.82	
Multiple R ²					0.32

Beta값도 0.41로 가장 크고 두 번째로 큰 Beta값을 보이는 신념이나 부부간의 난폭한 언행사용보다 3배 가까이 강한 관계를 보인다.

분석에 포함되었던 요인 가운데 성별, 가정의 구조적 요인과 자녀양육 요인들은 자기통제력의 원인으로 가정되었지 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가정된 것은 아니다. 이들 요인들이 자기통제력과 독립적으로 비행에 대해 갖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기통제력을 공변량으로 사용하여 중분류분석을 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공변량으로서의 자기통제력은 F비값이 229.16으로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기통제력을 공변량으로 사용했을 때, 앞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던 요인 중 성별, 부모의 감독, 자녀 훈계 시 부모의 난폭한 언행사용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결혼가정 여부와 부부간의 난폭한 언행사용 만이 계속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과 자녀양육 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기통제력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손가정이 자기통제력과 독립적으로 비행에 대해 갖는 영향은 기회의 변수로 설명할 수 있다. 친부모와 동거하는 가정보다 결손가정의 자녀들은 비행의 기회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비행도 저지르기 쉽다는 것이다.

VII. 요약과 제언

이 논문은 간프레드슨과 허쉬가 범죄의 일반이론에서 제기한 주요한 주장 가운데 네가지와 브라운필드와 소텐슨의 주장을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료와 그들의 담임교사의 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경험적인 연구결과, 간프레드슨과 허쉬의 주장들이 전반적으로 경험적인 지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일반이론으로 미국에서 제기된 자기통제이론이 한국 사회에서도 적절한 설명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통제이론에 대한 이제까지의 경험적인 연구가 서양사회를 중심으로 제한되어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번 연구를 통해서 자기통제이론이 동양사회, 특히 한국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자기통제이론의 일반성 주장은 여러차원에서 검증될 수 있다. 먼저, 그 설명 대상이 어느 특정 범죄나 비행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형태의 범죄와 비행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

적으로는 여러 다른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적인 일반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대한민국, 더 구체적으로는 서울이라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자기통제이론이 지역을 초월한 공간적 일반성을 갖는다는 주장에 대해 경험적 지지를 나타냈다. 공간적 일반성에 대한 검증은 자기통제이론이 앞으로 다른 많은 국가와 사회에서 연구되면서 더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통제력이 인생의 초기단계에서 형성된다는 주장을 적절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의 발달과정을 시간적으로 관찰하고 조사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자기통제력의 조기형성 주장에 대해서 간접적인 검증을 시도하였다. 즉 이론의 주장대로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쯤이면 안정적인 자기통제력이 형성된다고 가정한다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개인간의 유의한 자기통제력 차이가 관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개인 차이는 또한 그들의 비행차이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결과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개인간의 자기통제력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 차이가 그들의 비행차이를 상당히 설명하였다. 자기통제이론에 대한 이제까지의 경험적인 연구가 성인이나 고등학교 학생집단에만 적용되어 왔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기통제이론의 원인으로 가정의 구조적 측면, 부모의 자녀양육 방법, 성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요인 가운데 친부모와 동거여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을 뿐 다른 모든 요인들이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가정의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자녀양육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통제력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져서 구체적인 자기통제력 제고 방안을 제안할 수 있어야겠다.

넷째, 자기통제력이 남자와 여자 학생 사이에서 발견되는 비행의 차이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검증되었다. 초등학교 남자와 여자 학생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비행의 기회면에서 차이가 작을 것으로 보고 자기통제력을 통제할 때 남녀간에 나타나던 비행차이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자기통제력을 중심으로 다른 독립변수들이 통제되면서 남자와 여자사이에 관찰되던 유의미한 차이는 사라져 버렸다. 성별은 범죄나 비행 분야에서 가장 강하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요인 *correlate*로 다른 변수를 통제해도 그 영향력이 유

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발견이 더 나이 든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성인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남자와 여자 사이에 범죄나 비행의 기회면에서의 차이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통제력만의 영향을 밝혀 내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브라운필드와 소렌슨의 주장대로 자기통제력과 독립적으로 범죄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의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신념이 강할수록 비행이 낮게 나타났지만 그 관계가 기대한 단일한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변량이 작고, 그 결과 적절한 검증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조금 더 변별력있는 문항들을 사용하고 문항수를 늘려서 다시 한번 신념의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기기입식 자료와 더불어 담임교사의 평가적 보고를 함께 사용하여 자기통제력을 측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자기기입식 자료 또는 제 삼자에 의한 행위적 관찰만을 사용했던 이전 연구와는 달리 이 두가지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각각이 갖는 문제점을 상호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자기통제이론은 자기통제력의 구성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분명한 측정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통제력의 측정에 지속적인 연구가 되여질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에 따라 다양한 측정이 가능할 것이고 이것 자체가 자기통제이론에 대한 작지 않은 공헌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이론 가운데 상대적으로 새로운 이론에 속하는 자기통제이론의 주요 주장들을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료를 사용해서 검증해 보았다. 살펴본 초등학교 학생들의 가벼운 비행이외에도 그들의 불법적 행위와 범죄 피해 경험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영향도 각각 검증할 수 있을 것이고,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성인집단에서 얻은 자료를 사용하여 이론을 검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후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깊이 있는 이론 검증을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홍두승(1994),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Arneklev, B. J., H. G. Grasmick, C.R. Tittle, and R. J. Bursik(1993), "Low

- self-control and imprudent behavior,"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9, 225-247.
- Brownfield, D. and A. M. Sorenson(1993), "Self-control and juvenile delinquency : Theoretical issues and an empirical assessment of selected elements of a general theory of crime," *Deviant Behavior :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14, 243-264.
- Grasmick, H. G., C. R. Tittle, R. J. Bursick, and B. J. Arneklev(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irschi, T. and M. Gottfredson(1987), "A general theory of crime for cross-national criminology," Paper for the Fifth Asian-Pacific Conference on Juvenile Delinquency.
- Hirschi, T. and M. Gottfredson(1993), "Commentary :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47-54.
- Keane, C., P. S. Maxim and J. J. Teevan(1993), "Drinking and driving, self-control, and gender : Test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30-46.
- Longshore, D., S. Turner, and J. A. Stein(1996), "Self-control in a criminal sample : An examination of construct validity," *Criminology* 34, 209-227.
- Nye, F. I.(1958),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 Wildy.
- Min, S.(1994),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control*,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izona.
- Polakowski, M.(1994) "Linking self-and social control with deviance : Illuminating the structure underly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its relation to deviant activ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0, 41-78.
- Reiss, A. J. 1951. "Delinquency as the failure of personal and social contro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6, 196-207.
- Wood, P. B., B. Pfefferbaum and B. J. Arneklev(1993), "Risk-taking and self-control : Social psychological correlates of delinquency,"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16, 111-130.